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대화 총회 개최 결과

(2007.10.23-24)

원조의 양적 증대를 위한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채택된 이후, 개발재원이 증대 되었으나, 최빈개도국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에 UN 총회 의장, 사무총장 및 주요 국제기구와 원조공여국 대표들이 모여 개발재원의 균등분배, 국제개발금융기구 개혁과 공여국-수원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였고, 동 회의 결과는 향후 우리 원조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리 : 정책연구실]

I. 총회개요

- **명칭** :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총회

- **주제** : MDG 달성을 위한 몬테레이 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의 이행 현황 및 향후 조치 방향 검토

- **참가자** : Srgjan Kerim 유엔 총회 의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Danny M. Leipziger 세계은행 부총재 등 개

발관련 주요 국제기구 간부 및 한국, 영국(국제개발부 장관) 등 92개국 대표

II. 상세 내용

1. 주요 내용

-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채택된 이후 세계 ODA 규모가 확대되고, 공여국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최빈 국가들이 ODA의 혜택으로부터 소외(aid

orphan)됨에 따라 원조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

- 개도국들이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해외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선진공여국들은 이러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함
- 중장기 개발재원 확보 수단으로 무역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능력제고 (Aid for Trade)가 필요하며, 농업보조금 철폐 및 반덤핑 등 규제조치 완화를 통해 개도국들에게 유리한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 금융기구 및 통화 기구의 개혁을 통해 개도국들의 입장이 국제금융체제(IFI)에서 보다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주요 발언 요지

■ Kerim 유엔 총회 의장(개회사)

- 2002년 회의에서 설정된 개발재원 관련 목표들이 일부 성공적으로 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진행속도로는 대부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바, MDGs 목표달성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개발재원의 지역간 불균등한 분배, 자유롭고 형평한 다자무역체제를 방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등장, 국제개발금융기구 개혁의 둔화 등을 들 수 있으며, 2008년도하에서 개최되는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를 희망함

- MDGs와 더불어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UN과 여타 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 부문 등 다양한 계층의 개발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반기문 UN 사무총장

- 2002년에 개최된 UN 개발재원회의는 ODA 관련 이슈들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동 회의를 계기로 선진공여국과 개도국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2002년 이후 세계 개발원조가 질적, 양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원조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노정됨

-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ODA의 양적 증대뿐 아니라, 원조 효과 분석, 부채탕감 노력의 증대, 거시경제의 신중한 운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 등 다양한 조치의 병행이 필요함

- 특히, 저소득 국가로는 국제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적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자본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범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질병, 빈곤 등 비인도적 상황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공여국간 파트너십 제고가 필요함

■ Leipziger 세계은행 부총재

- 2002년 회의 이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면, 공여국의 부채탕감 노력 증대 및 수원국의 원조 관리 능력 제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임
- ODA의 규모도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 증가분의 대부분은 부채탕감(debt cancelation)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OECD DAC 회원국들의 2006년 ODA 규모는 실제로 5.3% 감소했음
-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국제무역시스템을 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하 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이 중요

■ IMF

- 저개발 지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부 아프리카 지

역에서도 일부 국가만 개발의 혜택을 받는 등 지역별로 형평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혜택의 형평한 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또한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거시경제의 안정을 통해 원조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며, 다양한 개발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WTO

- 중장기 개발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역의 경우, 농업보조금, 반덤핑조치 등 개도국에 불리한 무역규제 장치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
- MDGs 목표 달성 실패의 대가를 감안, 지도자들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과감한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함

■ UNCTAD

- 2006년 한 해 동안 개도국에 유입된 FDI는 3,7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개도국으로 유입된 전체 자본의 70%가 12개 국가에 집중되었으며 최빈개도국에 유입된 비율은 2.5%에 불과했음
- 개도국들이 세계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도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외환위기에 대해 완충작용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시행하는 사전예방조치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이행할 것이며, 개발과 환경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두 가지 문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 Group of 77 및 중국

- G77 및 중국의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 함
- 일부 개도국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도국 전체의 부채액도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진공여국들의 ODA 규모 증액, UN 등 개발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의 개도국 민자 유치 지원, 부채탕감 프로그램의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EU

- EU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2015년까지 회원국의 ODA 비율을 GNI 대비 0.7%로 높이는 것 외에도 중간 목표로 2006년까지 전체평균 0.39%, 2010년까지 0.56%를 제시하였으며, 2006년 목표인 0.39%는 이미 달성했음. EU는 현재 전세계 ODA의 57%를 부담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정부는 EU의 ODA 달성 목표를 성실히

■ 영국

- 영국의 ODA 규모는 2002년 이후 30% 증가했으며, 2013년까지 GNI 대비 0.7% 수준을 달성할 계획임
- 2008년 회의를 계기로 ODA 확대 계획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바, OD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장기 원조 계획 수립 및 공여자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

■ 한국

- 현재 세계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개발 목표 달성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국제사회는 ODA 규모를 2000년 530억불에서 지난 해 1천억 불로 증액 시키는 등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발의 혜택이 형평하게 분배되지 못하여 최빈개도국의 극빈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남
- 하지만 공여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징후라고 할 수 있음. 한국과 같은 신흥공여국의 경우, 자신의 개발경험을 수

원국에 전수함으로써 수직적 구조의 국제원조체제를 보다 더 유연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2010년에 OECD DAC에 가입할 예정이며,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ODA 규모를 2015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항공권 연대기금을 도입하고 “개발자원 연대기금 지도자 그룹” 제3차 총회를 주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자원 발굴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외환 축적과 인적자본 육성 그리고 장기 개발전략의 수립·이행을 통해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은 여타 개도국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네덜란드

- 최근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전세계 ODA 규모 감소, 개발관련 무역협상의 정체, 부채 탕감 제도의 불완전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네덜란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GNI 대비 0.8%의 ODA를 유지해 왔음
- 또한 최빈국들의 환경문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7억 유로를 추가로 공여할 계획임

- 무역의 경우, 최빈국들이 세계무역체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일본

- MDG 설정 이후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에서 극빈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아사망이 천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 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은 미진한 상태이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이들 국가들은 2015년까지 MDG 목표들 중 단 하나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 원조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제4차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동경 국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를 개최할 예정임
- 일본은 2005~2009년간 ODA 규모 100억불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 말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2배 확대할 계획임

■ 인도

-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특히, 국제 금융 및 통화 기구의 개혁을 통해 개도국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함
- 또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우므로 개도국들의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공여국들의 ODA 확대 노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ODA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까지 선진공여국들의 ODA는 GNI 대비 0.36%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하 라운드를 진행시켜 개도국들에게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인도의 경우 2007년말 까지 최빈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중국

- G77의 입장을 지지함.
- MDG를 포함한 국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 존재
 - 자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국으로의 민자 유입 부진
 - 전년대비 2006년도 ODA 규모의 감소
 -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새로운 무역규제들의 등장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먼저 개도국들의 능력 배양을 지원해야 하며, ODA 규모를 확

대하고 개도국의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국제자본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통해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브라질

- G77의 입장을 지지함. 브라질은 개별 국가들이 자신의 발전에 책임을 져야하며 국제개발협력은 개별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취지에 동의함
- 브라질은 거시경제적 안정 및 성장을 소득 분배와 조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MDG 목표가 설정된 이후 4천만명의 브라질 국민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음
-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정책의 시행, 개발을 염두에 둔 무역체제 형성, 남-남 협력의 활성화 등이 필요

[자료: 주국제연합대표부]